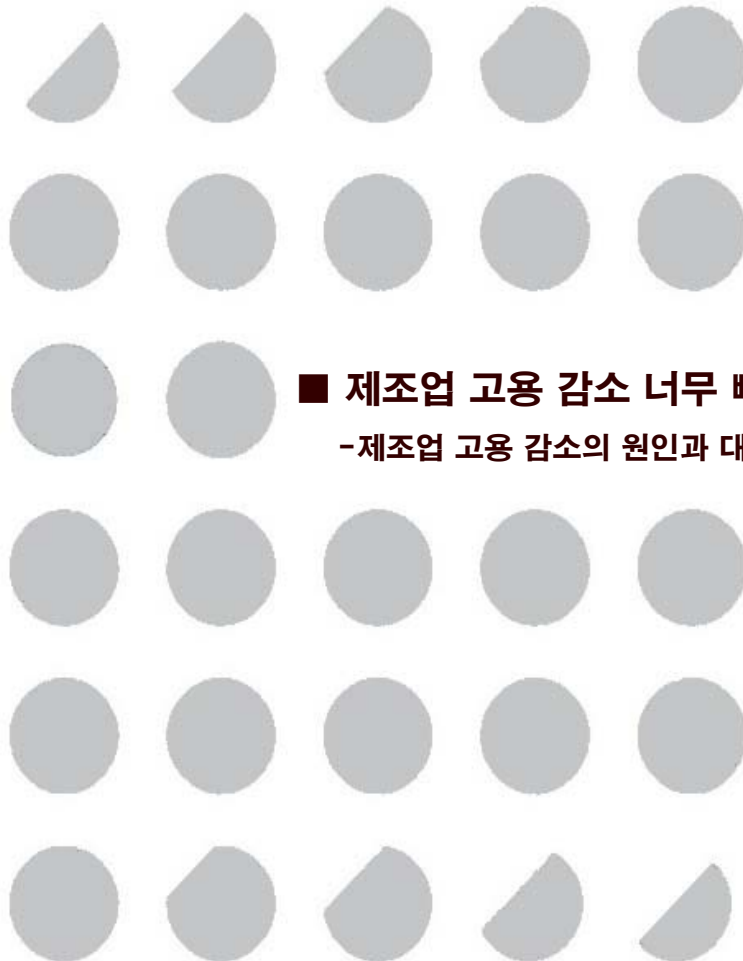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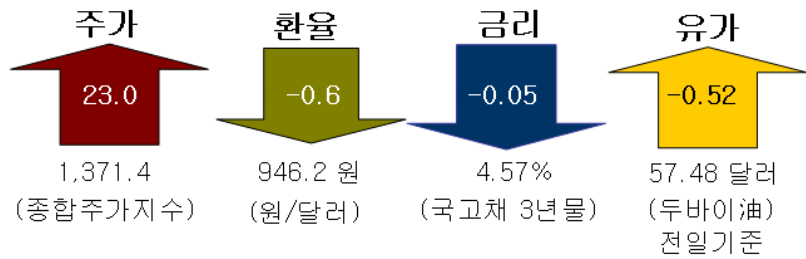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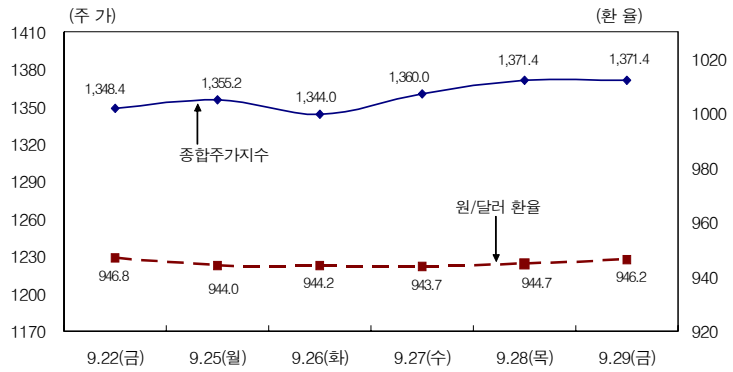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 감소 너무 빠르다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과 대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2~9.2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제조업 고용 감소 너무 빠르다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과 대책	1
주간 경제 동향	10
□ 실물 부문 : 1~8월 누적 경상수지 적자 13억 달러	10
□ 금융 부문 : 美 증시 강세에 따라 국내 주가 대폭 상승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제조업 고용 감소 너무 빠르다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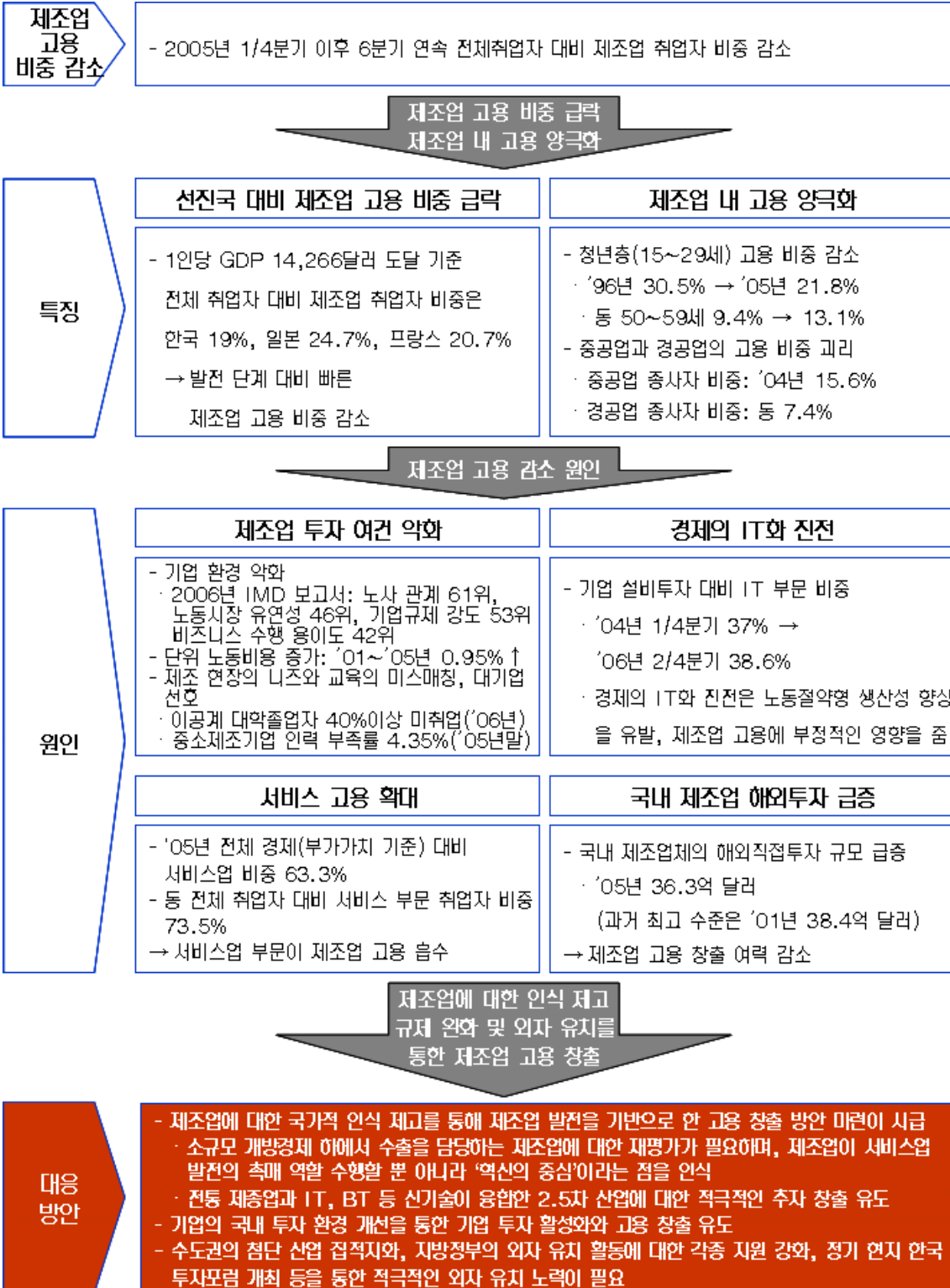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전체 취업자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005년 1/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선진 주요국들보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 내에서도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1인당 GDP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조업 취업 고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인 14,266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9%였으나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24.7%(1986년), 20.4%(1987년)였다. 다음으로는 제조업 내 청년층 고용 비중 감소, 중공업과 경공업의 고용 비중 괴리 확대 등 제조업 내에서도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96년 30.5%에 달했던 제조업 내 청년층(15~29세) 고용 비중이 2005년에는 21.8%로 8.7%p 감소한 반면 50~59세 고용 비중은 동기간 9.4%에서 13.1%로 증가하여 제조업 내 고용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제조업 종사자 대비 중공업 종사자 비중은 2004년 15.6%로 199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경공업 종사자 비중은 1995년 10.4%에서 2004년 7.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제조업 고용 감소 원인으로는 열악한 기업 환경, 경제의 IT화 진전,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급증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 2006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전체 61개국)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61위로 최하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46위, 기업 규제 강도는 53위, 비즈니스 수행 용이도는 42위, 최근 5년(2001~2005년)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평균 0.95% 증가 등 기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 더욱이, 제조현장의 니즈와 교육의 미스매칭, 대기업 취업 선호 등으로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40% 이상(2006년 졸업자 기준)의 이공계 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부족률 4.35%, 2005년 말 기준)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경제의 IT화 진전으로 노동 절약형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가 가운데 차지하는 IT 부문 비중이 2004년 1/4분기 37%에서 2006년 2/4분기 38.6%로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의 IT화 진전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경제(부가가치 기준)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5년 63.3%에 이를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 또한 73.5%로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제조업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 2003년(전년대비 22.9% 증가)부터 2005년(동 7.3% 증가)까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의 감소는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감소로 소득과 소비의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고용 불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선 제조업 부문 고용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과 제조업이 금융, 물류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산업 R&D 투자의 88%를 차지하는 등 '혁신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 제조업과 IT, BT 등 신기술과 융합한 2.5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사 갈등 완화, 기업 규제 개혁, 인력 수급 개선 등 기업의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기업 환경 개선, 수도권 첨단 산업 집적지화,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정기 현지 한국투자포럼 개최 등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 제조업 고용 감소 너무 빠르다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과 대책>



□ 제조업 고용 감소 너무 빠르다.

- 제조업 고용 감소의 원인과 대책 -

1. 악화되는 제조업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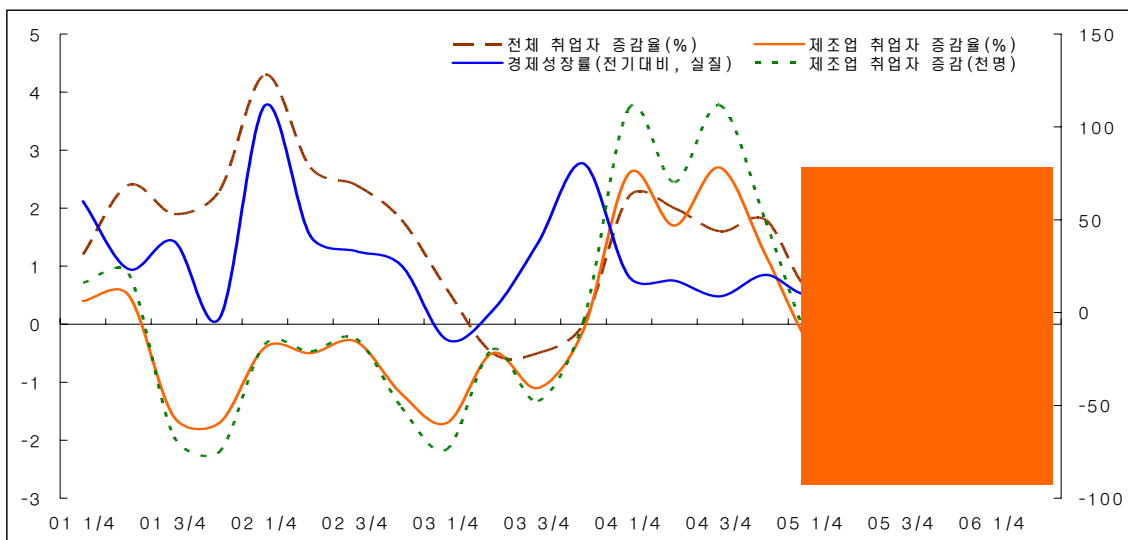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 악화) 최근 경제의 플러스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체 실업률이 소폭 개선되고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실업률 소폭 개선: 2005년 1/4분기 4.2%, 2/4분기 3.7%를 기록한 전체 실업률이 2006년 들어 각각 3.9%, 3.4%를 기록, 소폭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 또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취업자 수 10분기 연속 증가: 전체 취업자 수는 2004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 증가를 기록, 2006년 2/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 감소: 반면 2005년 1/4분기부터 감소세로 반전된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06년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하여 6분기 연속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과도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 증감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전년동기대비.

2. 제조업 고용 악화의 특징

○ (제조업 고용 비중 급감)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선진 주요국들보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선진국보다 빠른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인 14,266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9%였으나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24.7%(1986년), 20.4%(1987년)였음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비중과 1인당 GDP 국제 비교 >

(단위: 달러)

구 분	일본	프랑스	한국
연 도	1986년	1987년	2004년
1인당 GDP	16,544	15,963	14,266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	24.7%	20.4%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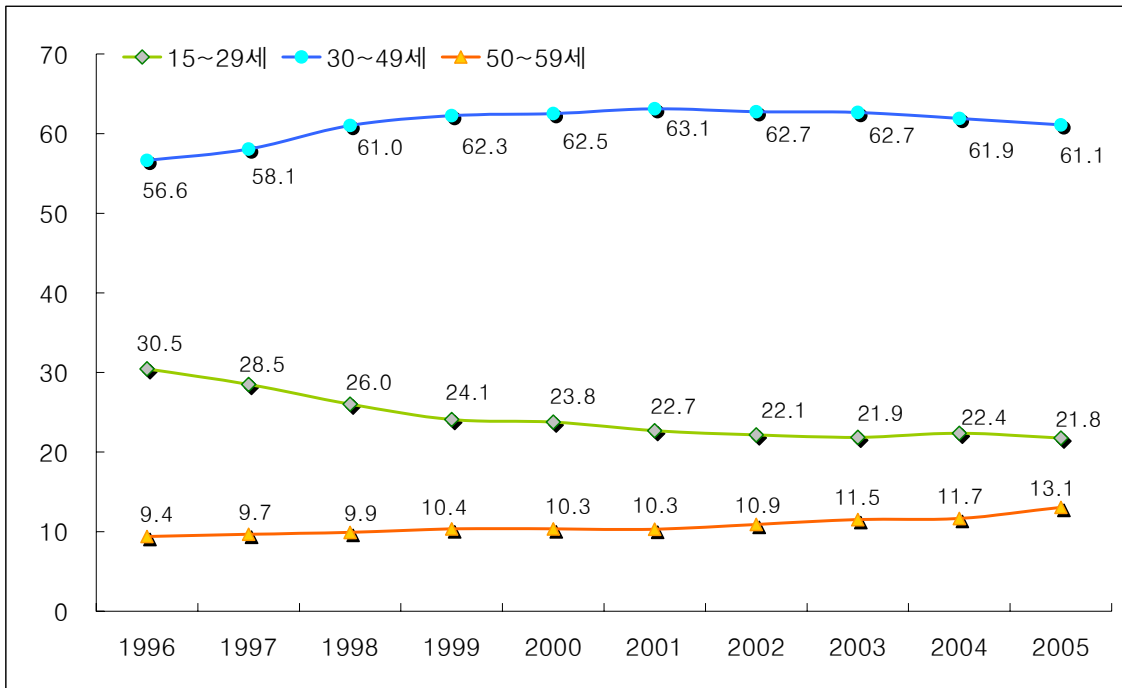
자료: ILO; OECD; World Bank.

○ (제조업 내 고용 양극화) 제조업 내 청년층 고용 비중 감소, 중공업과 경공업의 고용 비중 확대 등 제조업 내에서도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청년층 고용 비중 감소: 1996년 30.5%에 달했던 제조업 내 청년층(15~29세) 고용 비중이 2005년에는 21.8%로 8.7%p 감소한 반면 50~59세 고용 비중은 동기간 9.4%에서 13.1%로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 비중 축소를 흡수하고 있음
- 중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제조업 내에서도 전체 산업 종사자 대비 중공업 종사자 비중은 2004년 15.6%로 1997년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경공업 종사자 비중은 2004년 7.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른바 제조업 내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제조업 연령별 고용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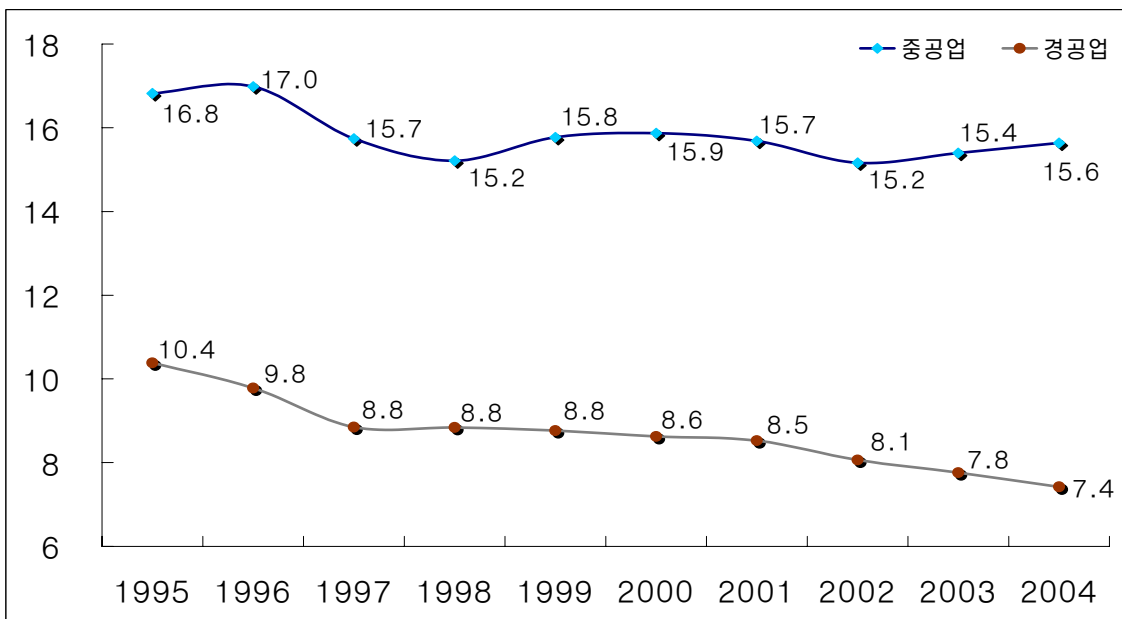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 중공업 · 경공업 종사자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3. 제조업 고용 악화의 원인

- (제조업 투자 여건 악화)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사 갈등, 과도한 기업 규제, 노동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의 국내 투자 회피 현상의 심화, 산업 인력 부족으로 제조업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대립적 노사 관계와 노사 갈등: 2006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61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또한 46위로 미국, 일본 뿐 아니라 경쟁국인 중국, 대만보다도 못한 수준임
 - 과도한 기업 규제: 한국의 기업 규제 강도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53위, 비즈니스 수행 용이도는 42위로 기업 환경이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기업 규제가 강함
 - 노동 비용 증가: 한편 최근 5년(2001~2005년)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은 평균 0.95%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0.07% 감소하였으나 2005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노동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비교 >

구 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노사관계	61	38	19	8	20
노동시장 유연성	46	9	6	16	21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주: 수치는 전체 61개국 대상 순위를 나타냄.

< 주요국의 기업 환경 비교 >

구 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규제 강도	53	30	16	15	28
비즈니스 수행 용이도	42	34	3	22	16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주: 수치는 전체 61개국 대상 순위를 나타냄.

<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단위노동비용	1.32%	0.7%	2.63%	-0.07%	0.19%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 제조 현장의 니즈와 교육의 미스매칭, 대기업 취업 선호 등에 의한 이공계 출신 취업률 저조, 중소기업 인력 부족 지속 등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 또한 제조업 투자 여건 악화 원인으로 작용
 - 높은 이공계 출신 미취업율: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취업자 비중은 200년 44.2%에서 2006년 57.9%로 13.7%p 증가하였으나, 제조 현장의 니즈와 교육의 미스매칭으로 여전히 40% 이상의 졸업자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한편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99,294명(부족률 4.35%)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취업 희망자들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대기업을 선호하거나 3D업종 기피에 따르는 현상으로 서비스업을 선호하기 때문임

< 이공계 대학 졸업자 · 취업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00년	2006년
이공계	졸업자(A)	68,055	103,950
	취업자(B)	30,055	60,155
	B/A*100	44.2%	57.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호.

< 중소 제조업체 부족 인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생산직				비생산직			총계
	전문가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사무 관리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현 인원	70,450	261,950	601,902	666,714	448,324	32,624	102,475	2,184,439
부족인원	4,294	12,442	35,555	32,289	10,425	875	3,414	99,294
부족률	5.74	4.53	5.58	4.62	2.27	2.61	3.22	4.35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결과, 2005년 12월.

주: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100.

- (경제의 IT화 진전) 한편 기업 설비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IT 부문 비중이 2004년 1/4분기 37%에서 2006년 2/4분기 38.6%로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의 IT화 진전으로 노동절약형 생산성 향상을 유발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¹⁾

1) 한국은행.

- (서비스업 고용 비중 확대) 전체 경제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5년 63.3%에 이를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 또한 73.5%로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확대됨

< 서비스 산업 규모 변화 추이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부가가치 비중	66.0%	66.2%	65.9%	64.0%	63.3%
취업자 수 비중	70.2%	71.5%	72.1%	72.8%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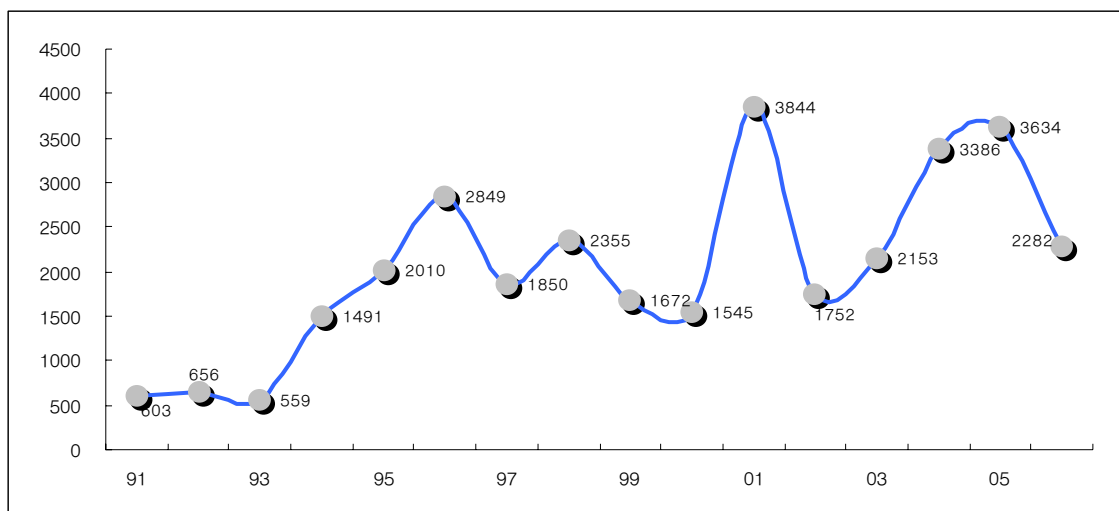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해외직접투자 급증)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5년에는 과거 최고 수준(38.4억 달러, 2001년)인 3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도의 62.8% 수준인 22.8억 달러를 기록 중임

- 한편, 해외 진출 기업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현지 관리자 등 고급 인력과 부품·소재분야의 고용 증가를 유발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현지화에 따르는 고용 대체 효과를 불러 올 것이며, 이것이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를 위축시키는 등 거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2006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6월의 누적치임.

4. 대응 방안

- (제조업의 중요성 재인식)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과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산업 창출 등 '혁신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제조업 수출이 성장을 견인: 우리나라는 각종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export-oriented)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부지향적(outward-oriented)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따라서 제조업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큼
 - 우리나라의 2005년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국내총생산, 2000년 가격 기준, 원계열)는 1.4%p(수출 기여도는 5.8%p)로 전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등 국내 제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부단의 노력이 있었음
- '혁신의 중심':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서의 경쟁 우위는 혁신 속도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국의 혁신의 중심은 바로 제조업임
 - 제조업 중심 R&D: 우리나라 전산업 R&D 투자(17조 원, 2004년) 가운데 88%인 15조 원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산업 연구원(124, 030명) 가운데 81.6%인 101,194명이 제조업에 속해 있는 등 제조업 중심의 R&D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신산업 창출: 최근 전통산업과 IT, BT가 융합한 2.5차 산업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제조업이 기반임
-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 금융, 물류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발달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는 분야이며, 제조업의 발전이 서비스업에서의 고숙련 직종의 창출을 견인함

-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속런 직종이 많이 창출된 반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국의 경우 금융, 보험 등에서 고속런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주로 자영업이나 비사업 서비스의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 고용 증가가 두드러짐²⁾
- 따라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5차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제조업 발전을 통한 고용 확대 뿐 아니라 나아가 서비스 산업 동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제조업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립적 노사 관계와 노사 갈등 완화, 기업 규제 개혁, 노동 비용 감소, 인력 수급 개선 등 기업의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대립적 노사 관계와 노사 갈등 완화: 이탈리아의 경우 1996년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와 함께 국가노동협약을 체결하여 고용 창출에 노력한 바 있는데, 한국 또한 勞使政 3자 협력을 통해 대립적 노사 관계와 노사 갈등을 완화하여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을 꾀해야 할 것임
- 기업 규제 개혁: 일본의 경우, 기업 투자 관련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필요: 일본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에 공장, 대학의 증설을 억제하는 것 자체의 유효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우리나라의 수도권공장총량제와 유사한 공업등제한법을 폐지(2002년 7월)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인 공장재배치촉진법 또한 폐지(2006년)함
- 노동 비용 감소: 프랑스의 경우 1995년 '고용촉진계약'의 확대 개편을 통해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사회보장비 부담액 면제와 함께 매달 2,000프랑의 보조금 혜택(3년 이상 실업자)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노동 비용을 감소(전체 노동 비용의 35%)시키고,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2) 신동균 외, 선진국일자리 창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년 2월, 3p.

- **인력 수급 개선:** 중소기업의 고용 능력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에 근거한 중소기업 고용 지원 정책 마련, 직업연계교육 실시, 창업 활성화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인력 수급 개선을 꾀해야 할 것임
 -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률이 높았던 경험이 있음³⁾
 - **중소기업 고용 지원 정책 마련:** 병역특례요원의 중소기업 우선 배정 및 비율 확대, 중소기업 연구원 세제 감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중소기업 인력 수급 개선:** 영국 교육과정평가원은 2004년부터 14세 이상인 중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직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청년 자립·도전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청년실업 해소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고용 시너지를 얻고 있음
 - **창업 지원 강화:** 일본은 최저자본금규제 완전 폐지(2006년 5월 회사법), 영국은 자영업지원수당제(실업급여 정지자에 대해 자영업 창업 상담, 훈련 및 최장 15개월 간 주 20~90파운드의 수당 지급) 등 선진 각국들은 창업이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창업 지원을 강화한 경험이 있음

- **(외자 유치 노력 강화)** 기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외자 유치 노력을 통해 고용 증대를 꾀해야 할 것임
 - **영국의 사례:** 각종 행정규제 철폐, 주요 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 규제 등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 유치 노력으로 1979년 이후 총 3,45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을 뿐 아니라 영국 전체 노동력의 20%를 외국기업들이 고용하고 있음⁴⁾
 - 따라서 기업 환경 개선, 수도권외의 첨단 산업 집적지화,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에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정기 현지 한국투자포럼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이 필요함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3) 신동균 외, 1999년 2월, 전개서 참조.

4) 정인수 외, 1만~2만 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년, p.81.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8월 누적 경상수지 적자 13억 달러

○ 8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악화로 적자폭이 7월의 3.9억 달러에서 5.1억 달러로 확대됨

8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악화
 - 상품수지는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어 1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유학 경비, 특허권사용료 지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7월의 3.4억 달러에서 20.9억 달러로 크게 악화됨

- 특히 서비스수지중 여행수지는 적자 규모가 7월의 12.3억 달러보다 1.5억 달러 확대된 13.8억 달러를 나타냄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하강세 가속화 우려
 - 올해 들어 내수 부문이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대외 거래에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내외수 복합 불황에 따르는 성장력 약화가 우려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8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5.6	-0.5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3.0	4.2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7	7.3	-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7.9	12.0	18.7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10.9	4.4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2,345	2,316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3.4	3.4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19.9	22.0	18.2	23.1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6	27	54	-11	7	9	-4	-5	
	무역수지(억\$)	294	232	60	49	61	17	51	20	6	6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2.3	2.9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3.4	2.9	3.8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美 증시 강세에 따라 국내 주가 대폭 상승

○ (해외 금융 시장) 美 9월 소비자신뢰지수 예상의 호조로 달러화 강세

- 금리: 미 주택판매 가격 하락 발표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의 호조의 영향 등으로 반등하여 강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4.59 → 4.61%)
- 환율: 유로 경제 둔화 전망 및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의 호조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 (\$/€ : 1.2784→1.2703, ¥/\$:116.56→117.81)

○ (국내 금융 시장) 외국인 지수선물 순매수 등으로 주가 대폭 상승

- 주가: 주초반 아시아 증시 약세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주중반 이후 미 증시 강세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데다 외국인 지수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승 (1,348.4→1,371.4)
- 금리: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 방침 등의 영향으로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62→4.57%)
- 환율: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월말 및 추석을 앞둔 수출 네고 물량 출회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946.8→946.1)

○ (전망) 추석 연휴에 따르는 거래일수 축소로 금융시장 안정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9.22	9.29.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48.4	1,371.4
	국고채3년(%)	3.28	4.02	4.60	5.08	4.93	4.92	4.62	4.57
	원/달러	1,035.1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8	946.1
해외	DOW	10,783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508	11,718
	Nikkei	11,489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5,634	16,025
	미국채10년(%)	4.22	3.91	4.32	4.39	4.85	5.14	4.59	4.61
	일국채10년(%)	1.44	1.17	1.48	1.48	1.78	1.93	1.63	1.66
	달러/유로	1.3556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784	1.2703
	엔/달러	102.56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6.56	117.81
	두바이(\$/바렐)	33.11	52.09	56.32	53.19	59.16	67.17	56.96	57.48

주 : 해외 지표는 전일 기준임.